

🏠 2026년 정배교회 설 가정예배 순서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 - 가족 중 한 명

성경 봉독 - 시편 1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 - “복 있는 가정”

시편의 첫 번째 노래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과 이에 대조되는 “악인들”을 대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마치 한편의 풍경화라도 같은 상징 언어를 통해 명확히 나누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푸르르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따르면,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누군가를 비웃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적인 반복을 통해 시인이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습니다.

그 때, 화려한 거짓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냅니다. 더불어 나아가며 온전한 생명으로 넘실거리는 세상을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시편 1편이 기록된 그 먼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오늘 우리와 달리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의 보통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사서 그것을 읽고 곱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밤낮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과 회당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백성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깨우쳐 준 덕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서로 나눌 때, 누군가 사랑어린 목소리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안에 담긴 은혜가 더욱 생생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역할입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며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새해, 시편의 첫 번째 찬송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 가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공동 기도(가족이 다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한 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사철에 봄 바람 불어잇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